백화 만발

박 승히 그림

3 - APR 11
1961

Пэ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Посольство США
1 ∨-12 №634

화살

1960년 10월호(135)

황금 파도

전국의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청산리의 교훈을 살려 농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작년보다 수 배나 되는 자급 비료를 장만하고 새 땅을 쟁취하며 한 치의 땅도 묵이지 않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파종, 모내기, 김매기 등 영농 작업을 례년에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올해에 불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류례 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박 승히 그림

청산리 방법으로 일 한 데서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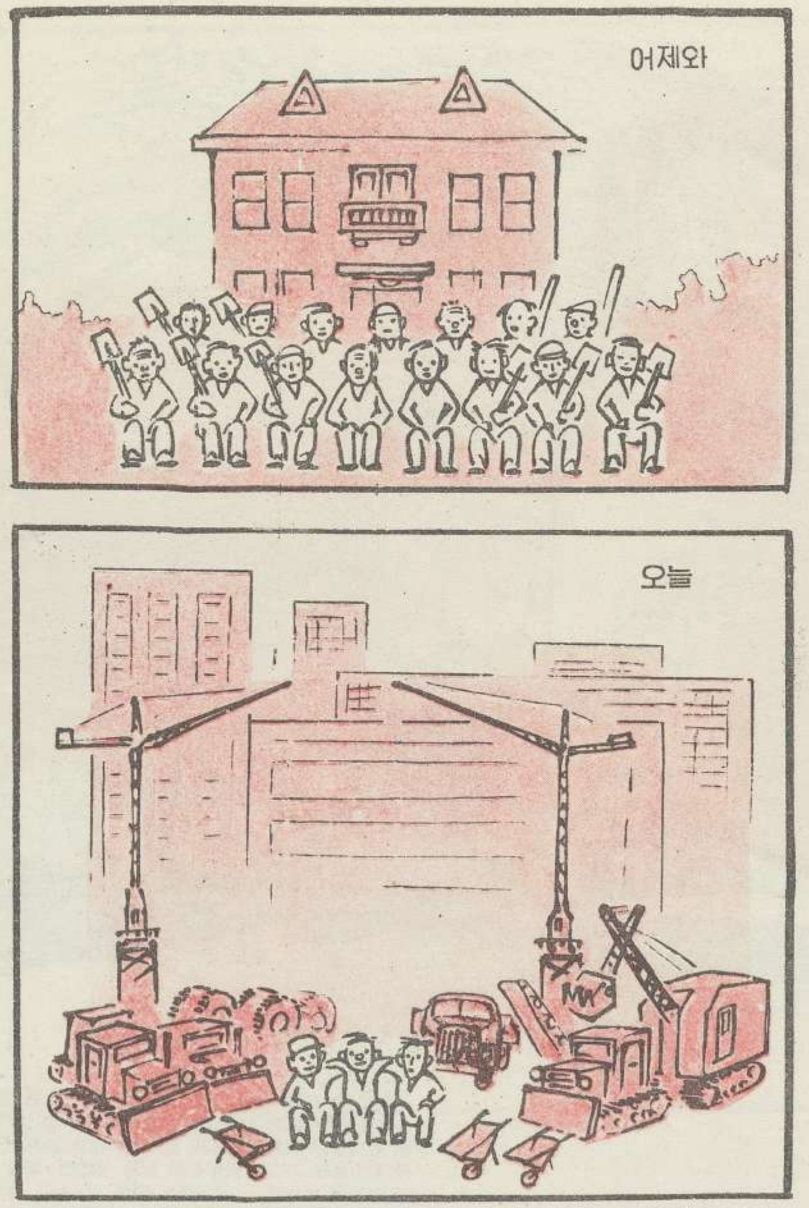
올해 농사에서 류례 없는 풍년은 조합원들의 생활에 풍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 조합원들은 «청산리에서의 수상님의 교시가 우리를 잘 살게 하였다»고 소박하게 자기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금년도 영농 사업은 참말로 청산리 당 총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 교시 정신으로 일관되였고 오늘의 풍성한 결실은 다름 아닌 그 열매인 것이다.

«비날론 공장 건설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1억 5천만 메터의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충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학 공업의 강력한 기지를 축성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화학화의 기초로 되는 비날론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를 명년 5. 1절까지 끝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7개년 계획의 첫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됩니다»(김 일성)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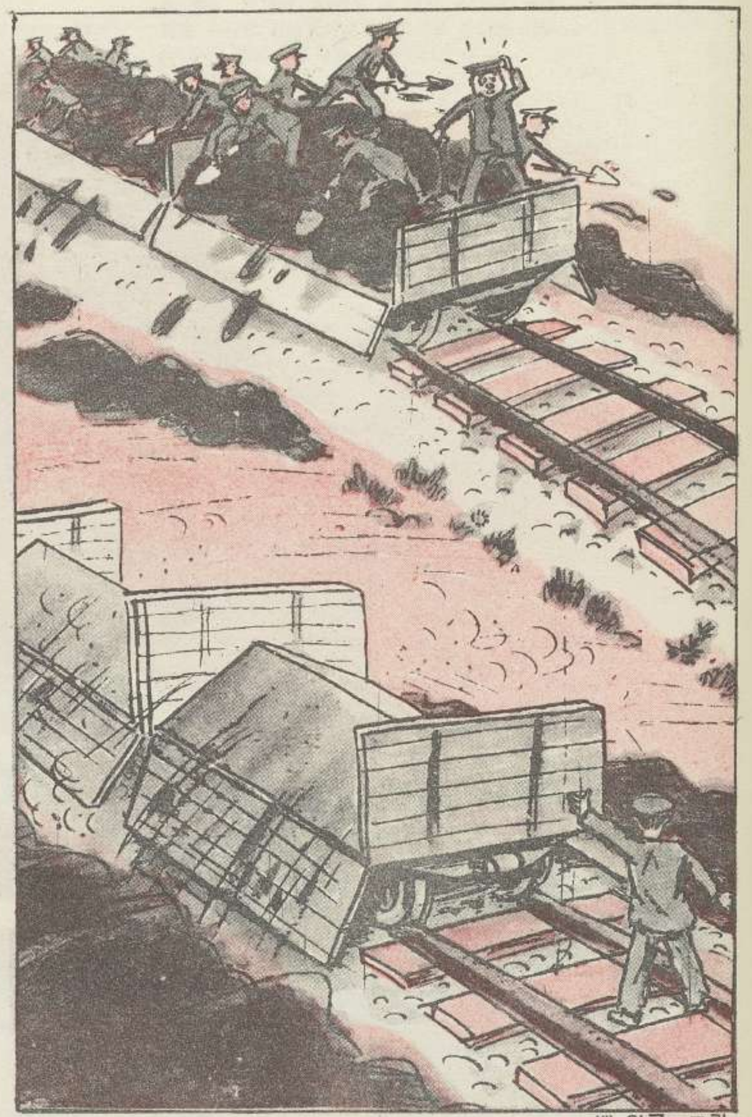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건설장에서 기념 촬영



최 영근 그림

어느 편이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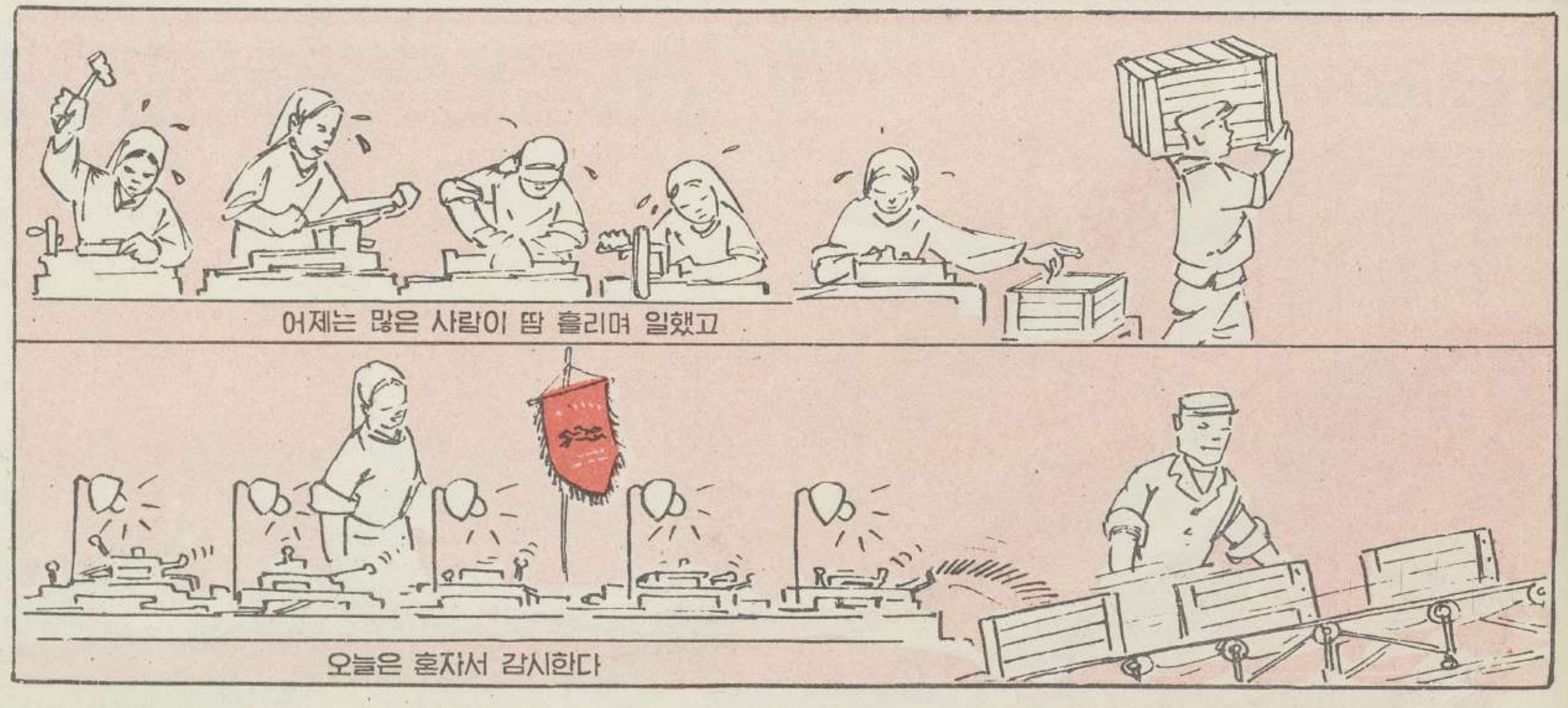
—빠르고 로력도 적게 드니
꿩먹고 알먹기지요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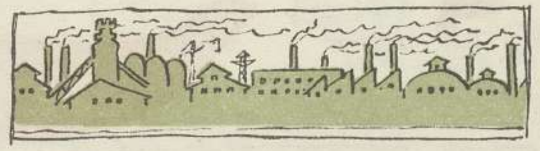
평양 제침 공장 변 명선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31 건의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제침 공장에서

송 시엽 그림



여기서도 기계화 저기서도 기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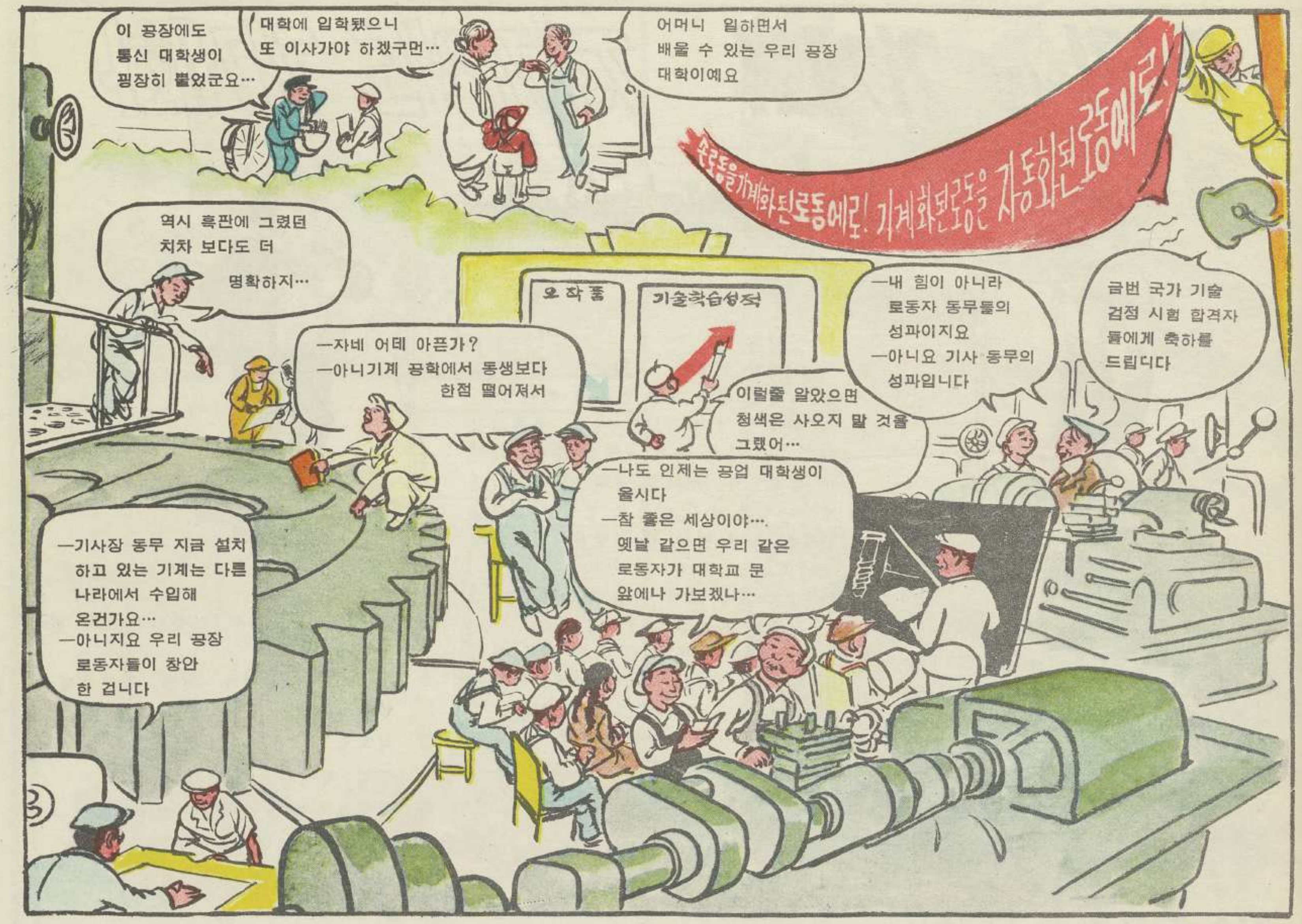


최 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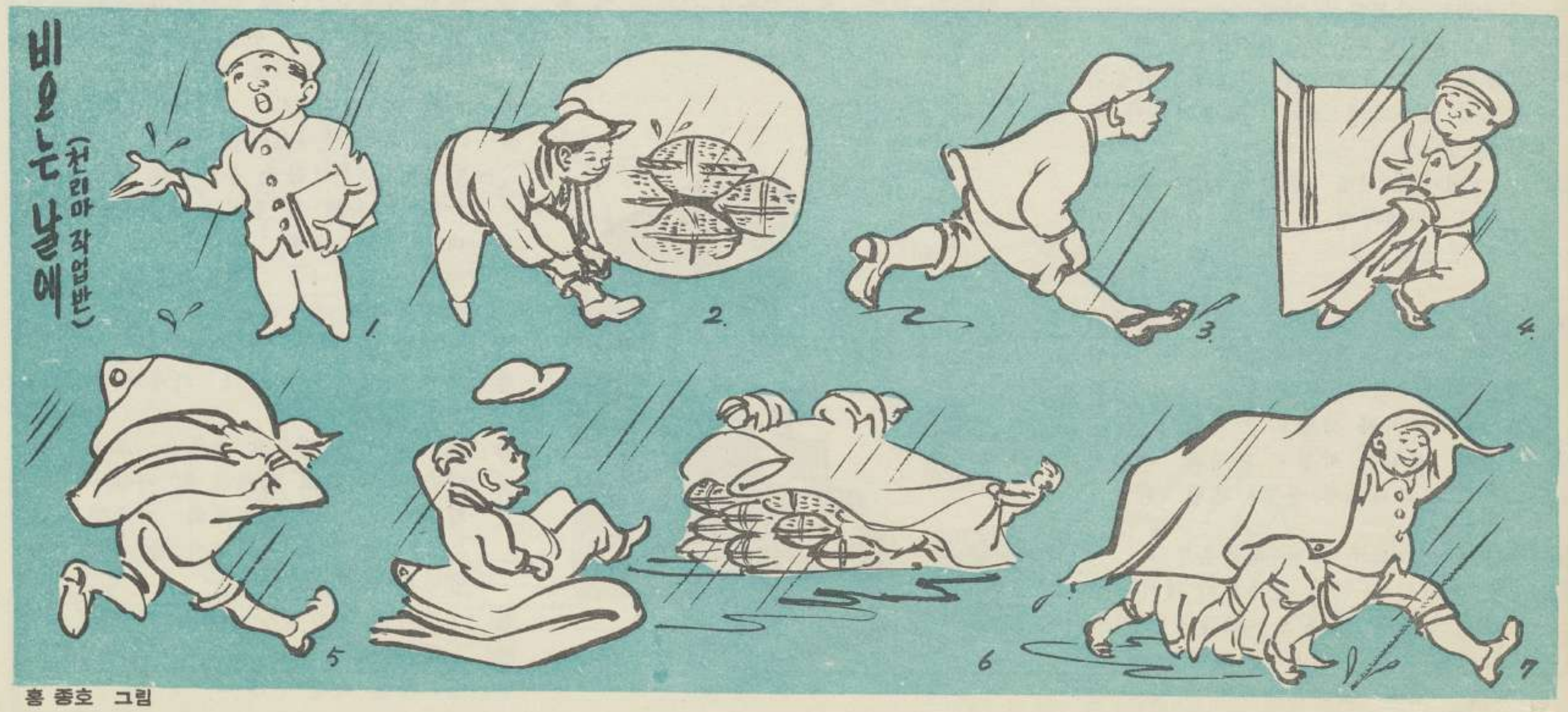
을 여보게 박동무!
갑 야 이거 오래간만이로구만! 그래 지금 어디 있나?
을 나? 나 지금 여기 있지 않나?
갑 이사람, 자네 직장이 어디냐 말이야!
을 음 건설 트레스트에 있어
갑 건설 트레스트? 그럼 일이 매우 힘들겠구먼
을 힘은 무슨 힘? 어데선 그만 일 안하나?
갑 허지만 거기선 집을 하나 짓재두, 자삽으로 파내구, 목도루 메여 나르구, 등짐으로 져 나르구…
을 이 사람이 옛날 소릴 허구 있구만 그래?
갑 그럼 뭘루 허나?
을 기계루 허지 뭘루 해? 기초는 엑쓰까와또르껴 소형 굴착기루다 파게 되구 그리구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운반 작업이 100% 기계화가 되네
갑 운반두?
을 그렇지 벨드 콤베아며 용드레 기중기 삭도식 토운차며 그네식 토운기루다 척척 알었나?
갑 야 그러니까 인젠 등짐으로는 하나두 안허게 되겠구먼 그러니까 지게가 기계로 변했군요?

을 아무렴, 바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네, 인제 모두가 기계화가 되는 판일세. 자갈이며 모래 같은 걸 싣고 부리고 하는 상하차 작업도 기계화
갑 아무렴 상하차 작업도 기계화 돼야지
을 그리구 콩크리트며 몰탈 혼합 작업도 기계화
갑 물론이지 그리구 미장 작업은?
을 미장 작업이야 원래 기계화가 돼서 3 배 이상의 능률을 올리고 있잖나? 지금 어디서나 그걸 광범히 도입하구 있구, 그리구 인제 앞으로는 미장 일은 열마 안해도 돼.
갑 아니 미장 일이야 처녀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은 건대 소홀히 하면 되나?
을 자 보게 인제 한간막이 대형 브록크는 개창 미장까지 해서 조립을 허지 그리구 톱밥이며 대패밥 염화 마그네샤, 세멘트, 합성 수지 등으로 건식 미장판을 만들어 쓰면 미장 일이 절반이나 축소된다네
갑 야하, 그리구 보니 건설 부문에서도 전부 기계로 하게 되겠구나!
을 우리 당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받들고 어디선들 지금 기술 혁신이 안 일어 난데 있나? 더구나 앞으로 7 개년 계획 기간에 방대한 주택 건설을 보다 더 화려하고 쓸모 있게 보다 더 빠르게 질적으로 보장하자면 건설 작업의 기계화 아니군 되나?
갑 그렇지 기계화라야 로력, 자재, 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건설을 빨리 보장할 수 있으니까!
을 그런데, 자네네 직장은 어떤가?
갑 우리 직장은 단추 직장으로 되네.
을 단추 직장으로? 아니 전엔 무슨 기계를 만든다더니?
갑 단추라니까 뭐 옷에 다는 이런 전 줄 아나?
을 그럼?
갑 단추만 하나 꾹 누르면 기계가 저 혼자 저절로 물건을 만들어 내도록 한단 말일세.

을 음 그럼 자동화가 된단 말이구먼 그래?
갑 원료만 척 집어 넣으면 기계가 저 혼자 턱턱 찍어낼 판이지
을 선반으로 깎지 않구 찍어 낸다? 그래 그건 무슨 기겐가?
갑 이건 자동 프레스라는 거야
을 프레스?
갑 자네 여태 모르나? 수상 동지께서 특히 프레스 새끼치기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해서 강조하시잖었나?
을 옳아 프레스 새끼치기 운동
갑 벌써 우린 여러 대 만들어 냈구 더우기 작업 공정을 흐름식으로 되는 종합 자동화에 착수했네
을 옳지 자동화! 참 어디선가는 자동 적재기를 창안해서 무슨 짐이고 기계루다 맘대로 싣고 부리고 헌다나
갑 옳지 자동 적재기
을 그러구 또 어디선가는 자동 전기삽을 만들어서 무연탄을 부리는데 열두 명이 4시간 걸리던 걸 운전공 혼자서 30분에 해 낸다누만그래
갑 야! 빠르구나! 그런 것들은 자네네 직장에서도 필요허겠는데
을 그래서 한 번 가 볼 작정이야
갑 그리구 보니 어디서나 기계화 자동화 운동이로구먼그래
을 아무렴 일은 헐하고 능률은 오르고 로력은 적게 들고 생산은 더 나고…
갑 앞으로 인제 전부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날이면 마치 처녀들이 춤 추듯 일이 얼마나 홍겨웁겠나!
을 그러기에 기계회가 좋다는 게 아닌가?
갑 그렇지
갑, 을, 기술 혁신 만세



홍 종호 그림



주인들

오랜 주물공으로 일해 온 구성 광산 기계 공장의 한 고급 기능공은 리 현동 천리마 작업반에서 오작을 없앴다는 소문을 듣고 의아한 생각으로 그 작업반에 찾아 갔다. 정말 생산 그라프에는 오작 비률이 0 %라고 써여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얼마 전에 리 현동 작업반에서 오작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코'방귀를 뀌었다.

(20년 동안을 주장 일을 해 왔지만 주물에서 오작을 안낸다는 건 허풍이야)

사실 다른 공장에서도 이때까지 어느 부문보다도 오작이 많은 것이 이 주물 부문이였고 그래서 오랜 주물공들도 주물에서 오작이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 검사원까지 없애구 오작을 안내겠다구? 검사원이 방조를 주구 검사를 하는데두 오작이 있는데…)

그러니만치 그는 지금 생산 그라프를 보며 《아마 저건 6 자를 잘못 쓴 걸 0 자루 보구 그러거나 그렇지 않으면 10 자에서 1 자가 지워졌거나 한 걸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리 현동 작업반장에게 물었다.

《저게 어떻게 된 거요? 오작이 0 %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쓰진 않았습니다.》

《검사원 없는 데 이렇단 말이요?》

작업반장은 정색하여 대답했다.

《검사원이 없이야 어떻게 오작을 없애겠소. 오히려 검사원이 더 늘었지요》

《글쎄 그렇겠지, 난 또…지금은 검사원이 모두 몇이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모두 검사원을 겸하니까 열다섯명이지요》

《아니 그럼 검사원이 없다는 게 정말이요?!》

《예 전문 검사원이 없다는 말은 옳습니다.》

《거 참 신기한걸! 검사원이 없는데도 오작품이 없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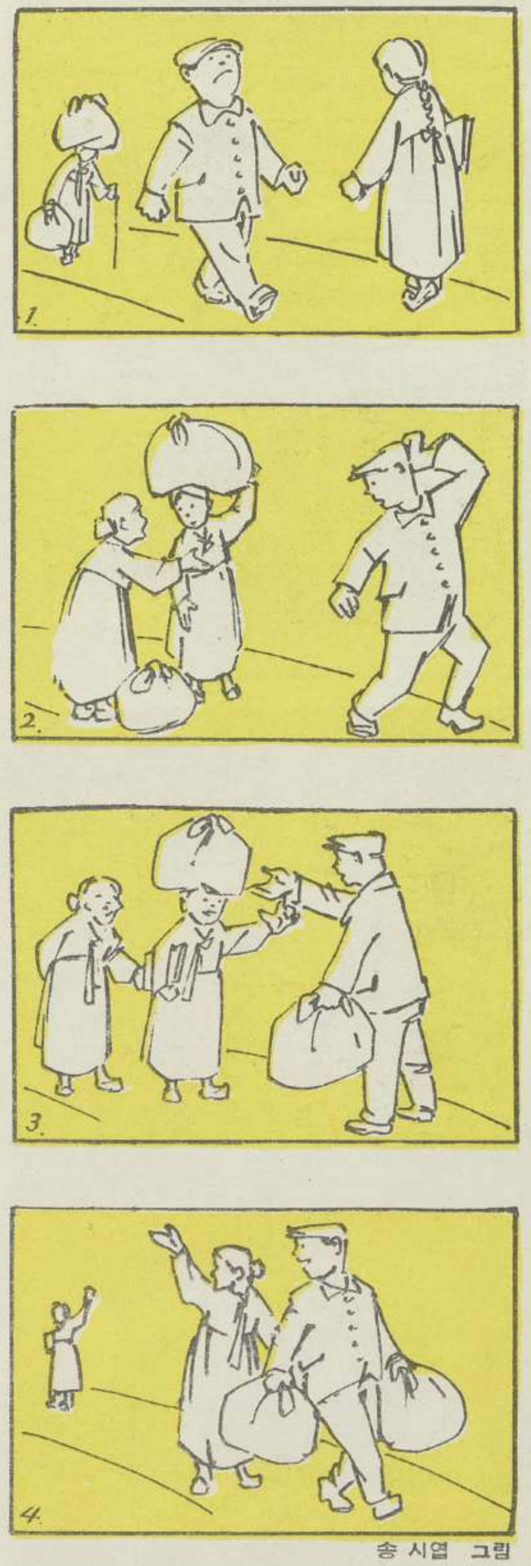
《신기한 거야 하나두 없지요. 제 물건을 만드는데 무엇때문에 남의 검사가 필요하우, 제 물건인데 잘못 만들라면 잘못 만들겠소. 그리구 기술에서도 모두가 검사원의 수준을 릉가했으니 검사원이 그만 무용지물로 돼 버렸지요》

리 윤봉

뛰는 사람 우에 나는 사람 있다

허 성필 그림

길'가에서



송 시엽 그림

류행어 만화 사전

《선거 공약》

《정치냐 망치냐》

《뒤'문 입학》

《실업자 양성소》

백 인균 그림

남조선 류행어 해설

신 흥순

감 투

옛날에 옥관자 금관자를 붙인 판 쓴 량반들의 〈권력 감투〉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엔 대통령 감투니 장관 감투니 지사 감투요 국장 감투니 하는 벼슬 감투의 속칭으로 되여 있다. 이 감투의 조화가 어찌나 많은지 사람을 능히 죽이고 살리는 만능의 권력과 세도를 가졌는지라. 감투만 하나 얻어 쓰는 날이면 돈 뭉치가 저절로 들어 오게 마련이요. 수 천리 밖에서도 뢰물'짐이 꼬리를 물고 찾아 들게만 배판이 되여 있다. 그래서 오늘 남조선 괴뢰 정부 내에서는 이 감투 싸움에 칼부림, 권총 사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고급 권투장

〈국회〉 의사당을 가르켜 하는 말이다, 소위 《국회 위원》이란 자들이 《국회》 도중에 수만 틀리면 이놈 저놈은 보통이요 이자식, 저자식, 쇠새끼, 개새끼 하다가 나중엔 주먹다짐, 권투 시합이 벌어진다고 해서 〈고급 권투장〉이란 말이 생겼다. 《국회》 도중에 30여 명의 테로 패거리를 데리고 들어 와 란장판을 벌린 사건으로부터 리 승만이가 《신국가 보안법》을 통과시킬 때 몽둥이로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잡아 가두어 놓고 《자유당 의원》들 끼리만 제깍 거수를 해버린 사건 등 그야말로 기자들이 론평한 바와 같이 《세계에 류례 없는 권투장》이다. 그래서 《민주당》 상층부에서는 《민주당 출신 국회 의원들은 유도와 권투를 배우라》는 구호까지 내 세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6일에는 《민주당》 내의 구파, 신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 데 란투극이 벌어졌는데 그 통에 유도 4단 6단짜리 의원이 덤벼 들어 《교통부 장관》을 메다꽂는 바람에 허리까지 부러졌다는 소문이 있다.

사바 사바

원래 관리들에게 뢰물을 주고 받을 때 소곤소곤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 요즘 남조선에서는 벼슬 감투만 쓰면 뢰물 받아 사바사바, 공금 횡령해서 사바사바, 남의 등 쳐서 사바사바, 거짓말 해서 사바사바, 하여튼 이 사바사바가 조화를 부리는 날이면 안될 일두 잘 될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막힌 일도 쩍 나가고, 옹친 일도 풀어지게 마련이요, 심지어 죽을 형을 받은 사람까지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사바사바란 말이 어찌나 퍼졌는지 요즘에 와서는 사바사바란 말을 딴 말로 바꾸어서 《고등어 두 마리》라고도 한다. 이것은 일본어로 고등어를 《사바》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락하산 융자

혹은 《락하산 대부》라고도 한다. 기업가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데는 일정한 수속 절차가 있다. 반드시 저당 문건이 작성되여야 하며 그 담보물을 감정한 후에 그 평가에 의해서 돈을 대부해 주게 마련인데, 이 수속을 받자면 적어도 3—4 개월 내지 4—5 개월은 걸려야 되며 더구나 중소 기업자들에게는 정부의 《초긴축 정책》이니 해 가지고 좀체로 융자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정부 고관》들과 내용이 있는 예속 자본가들은 이러한 시끄러운 수속이 없이도 쉽사리 돈을 대부 받는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무 총리》 또는 《장관》이 직접 자기 직권으로 은행에 내려 멕이는 것이다. 이렇게 락하산처럼 우에서 내려 멕인다고 해서 이것을 《락하산 대부》라고 한다.

8법 천지

원래는 명색 6법인데 거기에 불법과 무법이 더 해서 8법이 되였다는 풍자적인 말이다. 일반 인민에게는 범죄요, 재판이요, 처형이요 하며 벼라별 죄명을 들씌워 소위 법이란 것을 적용하지만 돈 있고 권세 있는 특권 계급은 자기네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되는대로 집어 먹고 제멋대로 행세를 하는 불법과 무법의 세상인지라 이것을 야유해서 〈8법 천지〉라는 말이 나왔다.

남을 암살한 살인범이 백주에 큰 거리로 활보하는가 하면 무고한 인민들을 단꺼번에 수 백 명씩 학살한 자가 일약 고관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판이니 법 질서고 뭐고 말할 나위가 없다.

주간 강조 주간

괴뢰 정부에서는 매사가 뜻대로 잘 안되니까 걸핏하면 무슨 주간, 무슨 주간 해 가지고 인민들을 내 모는데 벼라별 주간이 다 생겼다.

〈체납 세금 징수 주간〉을 비롯해서 〈판자집 철거 주간〉이니 〈징병 기피자 단속 주간〉, 〈탈주병 체포 주간〉, 〈자동차 속도 제한 주간〉, 〈정신 무장 강화 주간〉, 〈내핍 생활 강조 주간〉 그리고 〈보급품 분실 방지 주간〉이요, 〈상부 존엄성 강조 주간〉 이루 다 들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주간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몇 개씩 겹쳐 진행되건만 일은 여전히 삶은 돼지 다리 틀어지듯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주간이 나왔는고 하니 이 주간들을 강조하는 〈주간 강조 주간〉까지 나오게 되였다는 것이다.

미제 강점이 빚어낸 남조선 인민들의 참상

이녀석아! 밀린 《가옥세》를 빨리 내란 말이야!

—여기는 미군 주둔 구역이다
철거 하지 않으면 허물어 치우겠다

—부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길도 없다?
옳지 《이민》으로 팔아 먹어야 하겠군!

—18시간 일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두란 말이
다 실업자가 부지기수란 걸 알아야 해!

—생활이 어떠냐구요?
보시다 싶이 솔긁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안 창수 그림

박 승희 그림

장 면은 미제의 조종 하에 소위 《국무 총리》의 자리에 들어 앉자마자 먼저 인민들의 고혈을 짜낸 4억 2천만 환의 거액으로써 《국무 총리 관저》를 지을 것을 《국무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장 면이 정치를 시작했다

곽 일봉

《일제 때 군수라!, 이 사람 경력이 괜찮군. 꽤 쓸만한데…》

책상 우에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는 리력서 가운데서

《도지사》, 《경찰 국장》감을 찾고 있던 《내무부 장관》은 왜놈 때 군수 노릇을 해먹은 윤 모란 자의 리력서를 뽑아들고 무릎을 탁쳤다.

《됐어! 7년 동안이나 군수를 해먹었으니 지방 장관쯤은 문제 없겠지, 장 면 국무 총리께서도 일제 때 경험 있는 고급 관리를 쓰자고 각별한 지시도 있은 게구…》

그는 윤 모의 리력서를 따로 밀어 놓고 무데기로 쌓인 리력서 더미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순간 그의 머리에는 《국회 의장》, 《국무 총리》, 《민주당 총무 부장》 등등 모모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청탁이 떠올랐다.

그는 또 하나의 리력서를 뽑아 펴들었다.

《가만 있자! 이게 바로 조금전에도 전화로 청탁을 하던 장 총리의 외삼촌이 되는 분이군, 이 분은 경상북도 경찰 국장으로 보관을 잡으라구 했지…》

이렇게 하여 《내무부 장관》은 왜놈 때 고급 관리가 아니면 이러저러한데서 청탁을 받았거나 자기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도지사》, 《경찰 국장》감으로 뽑다 보니 이번 《인사 행정》을 통해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사실에 있어서 그는 벌써 제 아들을 써 달라느니 제 동생을 써 달라고 모리'군들에게서 부탁을 받은 뢰물만도 수 천만 환에 달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다 청탁을 받아 줄 수야 있겠는가, 더러 모르는척하고 시침을 뗄 수 밖에 도리가 없는 일이구… 그러나 이제 더 얻어 먹을 구멍 수를 찾아야 하겠는데…》

《내무부 장관》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리력서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였다. 《국회 의원》 리 모가 《내무부 장관》실에 들어 왔다. 배가 나오고 살은 돼지 같이 쪄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리 모는 의자에 걸터 앉자마자 울러댔다.

《그래 이 사람아, 이번 통에 우리 아들놈을 써 주어야 할 게 아닌가…》

《가만 계십시요. 아들님이 누구시던가요?》

《여태까지 내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요?》

《오! 알만합니다. 알만합니다, 미국에 류학을 갔을 때 주색에 빠져 제일 말썽이 많던 그 분입죠…그런데 리 선생님! 《도지사》, 《경찰 국장》자리는 이제 거의 다 메꿨는뎁죠》

《무엇이 어쨌다구? 이놈들아, 나는 다 알고 있다. 뢰물을 받아 쳐먹고 《도지사》, 《경찰 국장》도 너희 신파놈들이 다 해 먹자는 배'장이지, 좋다! 나는 국회에서 너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테야!》

이 통에 《내무부 장관》도 언짢았든지 팔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좋습니다. 쩍하면 불신임안 타령인데 대체 리유가 무엇이요?》

《에이, 이놈 그래 국회 의원을 모욕할 작정이냐?》

《국회 의원》 리 모는 벌떡 일어 나서 《내무부 장관》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하여 《국회 의원》과 《내무부 장관》 사이에는 가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내무부 장관》에게 한대 맞은 《국회 의원》 리 모는 넘어지자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내무부 장관》에게 내던졌다.

의자에 얻어 맞은 《내무부 장관》의 코는 묵사발이 되고 얼굴엔 별안간 숫한 혹이 생겼다.

이리하여 실내는 문'자 그대로 수라장이 되였다.

까마귀 열두 소리에 고운 소리 없다

최 영근그림

최근 《내무부 장관》이란 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데모는 단호히 처단하겠다》고 떠벌렸으며 또한 《치안 국장》 이란 자는 《어떤 형식의 데모라도 리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량 검거하겠다》고 호통을 쳤다. 이러한 수작은 리 승만 역도의 본때 그대로이다.

배격한다!

서울 연세 대학교 각 단과 대학 수천 명의 학생 청년들과 량심적인 교수들은 학교를 더는 미국인의 손아귀에 내맡겨 둘 수 없다는 일치한 결의 밑에 《언더우드는 즉각 사퇴하라!》고 절규하며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백 인균 그림

남조선의 가을

남조선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풍수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 인구 수는 9월 5일 현재 209만 3천 여 명이나 된다. 그리하여 남조선 농민들과 그 가족들의 《살'길은 더욱 막연할 뿐》이라고 통신들은 보도하였다.

홍종호 그림

여름에는 홍수에 떼우고

가을에는 놈들에게 떼웠다

안 창수 그림

참패

원 광수 그림

남조선 대외 무역에서 수입 총액은 수출 총액의 23 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자본이 남조선 경제에 가져다 준 것이다

계속 터진다

원 광수 그림

괴뢰 《정부》는 남조선 경제력으로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군사 경찰비를 증대시켜 인민들에 대한 조세 부담액을 계속 증대시켰으나 괴뢰 《정부》의 채무는 4천억 환을 초과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년 간에만도 200억 환의 재정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허 능택 그림

《주한 미 경제 협조처》는 일제 《총독부》 기구 보다 더 큰 기구(9,900 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음)로써 남조선 도시와 항구에 거미줄 처럼 늘어 놓고 경제적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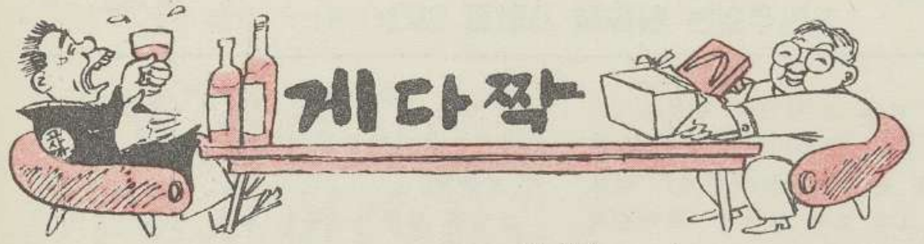
개와 사냥'군

안 창수 그림

상거지

안 창수 그림

최근 장 면은 미제를 등에 업은 일본 독점 재벌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일 것을 획책하고 있다.



게다짝

과 일봉

장 면은 요즘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다름 아닌 한 켤레의 게다짝을 《선물》로 받았다.

장 면은 그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그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게 한다.

장 면이가 이처럼 애지중지하는 게다짝은 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일본 외상 고사까를 두목으로 하는 이른바 《일본 친선 사절단》이 남조선에 기여들던 날이였다.

장 면은 이른 새벽부터 《중앙청》에 나타나서 쪽발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차비에 서둘렀다.

《내무부 장관! 일본 사절단을 맞을 준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각하! 념려 없습니다. 각하의 지시대로 거리에는 히노마루노하다(왜놈 국기)를 굉장히 내 달았고 경비도 물샐 틈 없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제 밤부터 비행장에 나가서 대기중입니다.》

장 면은 《장관》 나부랭이들에게 《환영》 정형을 따진 후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일본 제국의 사절들이 친히 나를 방문해 주다니, 참 감개무량한 일이야!》

그는 왜놈 때 《황국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련맹 참사》, 《황국 국민 정신 총동맹 천주교 련맹 간사》, 《대동아 전쟁 대책 협의회 참사》, 《조선인 학도 경성부 보도 련맹 리사》 등의 벼슬을 차고 《일본 천황》에 충성을 다 하던 일들이 주마등 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내가 오늘 미국에 충성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대일본 제국이 나를 길러 준 덕분이지!》

그는 감격을 금치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다.

바로 이때 그가 고대하던 《일본 친선 사절단》이 장 면을 《례방》하여 왔다.

《친애하는 고사까산(씨)! 원로에 얼마나 수고 하셨습니까?…》

《국무 총리 각하를 축하합니다》

옛 친일 주구와 쪽발이 《사절단장》은 서로 얼싸 안고 어쩔 줄을 모르고 빙빙 돌아간다.

그들이 서로 껴안고 얼마나 오래'동안 돌앗던지 이것을 바라 보고 섰던 괴뢰 《외무부 장관》이 떼 놓았을 때야 그들은 비로서 떨어졌다.

이윽고 그들 간에 흉악한 정치적 흥정이 벌어졌다.

고사까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한국 정부의 유엔 가입을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머리를 떼고나서 《총리 각하! 우리 일본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협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침략자로서의 본성을 들어 내놓았다.

《고사까산(씨), 그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두 나는 그것을 바란지 오랩니다…》

일제의 피 묻은 침략의 발을 또다시 남조선에 내디디게 하려는 장 면과 고사까의 음흉한 《회담》이 끝나자 고사까는 장 면에게 아양을 떨면서 미리 마련해 온 하나의 《선물》을 내 놓았다.

《총리 각하! 이것은 우리 일본 수상께서 보낸 선물입니다. 약소하나마…》

《오! 게다짝 고레와 나쯔가시이…(아! 게다짝이 그리웠어!)》

어찌나 반가웠던지 장 면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불쑥 튀여 나왔다.

이튿날 장 면은 미제에게서 《선물》 받은 례복에다 고사까에게서 받은 게다짝을 신고 《한일 회담》에 엄숙히 나타났다.

늙은 흑인 죠의 혁명

로 철

1960년 9월 25일, 유엔 제 15 차 회의가 한창 때 있은 일이였다.

이날 새벽 5시, 미국의 라지오에서는 난데 없는 소위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흑인 죠는 꿈결에서 깜짝 놀라 깨여났다.

확성기에서는 너 아나운서의 불여우 같은 목소리가 새여 나왔다.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요. 우리 미국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흑인 해방 기도 주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침대에서 내려와 두 다리를 꿇고 주님에게 기도를 드립시다.

죠는 귀가 솔깃해졌다.

—아니 이제부터는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단 말이지? 이게 과연 정말인가? 정말 주림과 멸시와 죽엄의 공포로 엮어진 나의 쓰라린 50 평생의 력사가 이제부터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물론 그는 미제가 발동한 이 갑작스러운 선전 깜빠니야가 유엔의 연단에서 일체 인종주의의 표현을 근절하고 모든 식민지 예속 국가와 인민들에게 즉시 독립을 부여할 것을 호소한 쏘련 내각 수상 흐루쑈브의 그야말로 력사적인 연설의 의의를 《약화》시키며 가장 인종주의적이고 가장 식민주의적인 자기의 본성을 《음폐》시켜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만 그 《자유》요, 《해방》이요 하는 말에 몹시 매혹되여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십자를 긋고 《주여!》를 불렀다. 오! 이 미국의 늙은 노예는 태양이 타 번지는 풍요한 땅 아프리카로부터 《가장 민주주의적인》 이나라에 끌려 온 이후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역경을 수 없이 겪어 왔으며 그. 얼마나 몸서리치는 광경을 보아 왔던 것인가! 바로 어제만 하여도 그의 오랜 친구인 허터슨의 아들은 다만 백인 처녀에게 곁눈질을 했다는 《죄》로 악착스러운 3케단 놈들에 의하여 그 당장에서 생화장을 당하였다. 지금 뉴욕에는 유엔 사업을 위하여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대표들이 와 있다. 그들이 백인 식당에서 쫓겨 나가고 가두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생명에 주의하라, 흑인아!》라는 위협장을 받지 않는 날이 드물다.

그런데 정부가 《흑인 해방 기도 주간》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죠는 황홀해졌다. 그는 집에서 뛰쳐 나와 거리에 나섰다. 어제 저녁 백인들이 쓰는 변소에 들어 가려다가 모두매를 맞은 자리가 아직도 몹시 쑤시였으나 마음만은 가뿐하였고 퍽 상쾌한 것 같았다.

식민주의는 림종을 고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이제부터는, 다만 《흑인 해방 기도 주간》 기간이라도 백인들이 그처럼 나를 멸시하지는 못하려니…

하고 생각한 죠는 집에서 나온 첫길에 만난 어느한 중년 백인에게 미소를 품고 아침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흑인 해방 기도 주간》 이란 말을…….

—이 자식, 누구에 대고 함부로 절을 해!

딱! 이것은 죠가 뺨을 얻어 맞은 소리였는데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백인 어른은 아침의 그 희안한 뉴스를 듣지 못하였거니….

하고 노여워 하지 않았다.

그는 전차 있는데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채 입구에 발을 디디기 전에

—썩 물러 서지 못해?! 이건 백인 전용차야!

—목 매달리고 싶으냐, 네그로 자식!

—저 검정개를 때려 죽여라!

하고 고함 소리가 한시에 터져나오는 바람에 떨어진 모자도 줏지 못한채 겨우 이 무서운 함정에서 빠져 나왔다.

—흑인 해방 기도 주간이라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셈인가?!…

죠는 차츰 아나운서가 말하던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늙은 흑인—노예 죠는 머리를 추겨 들었다.

때마침 뉴욕 만하탄 할렘 지구 (흑인 거주 구역)으로부터 흑인과 백인 로동자의 한 큰 시위 대렬이 《치욕스러운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타도하라!》 《우리는 흐루쑈브 수상의 제안을 지지한다!》라고 소리 높이 웨치면서 행진해 오고 있었다!

죠는 서슴 없이 이 대렬에 뛰여 들었고 그 대렬은 죠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아침 해'발이 굳은 결심이 어린 그의 얼굴을 환히 비치고 있었다.

송장의 지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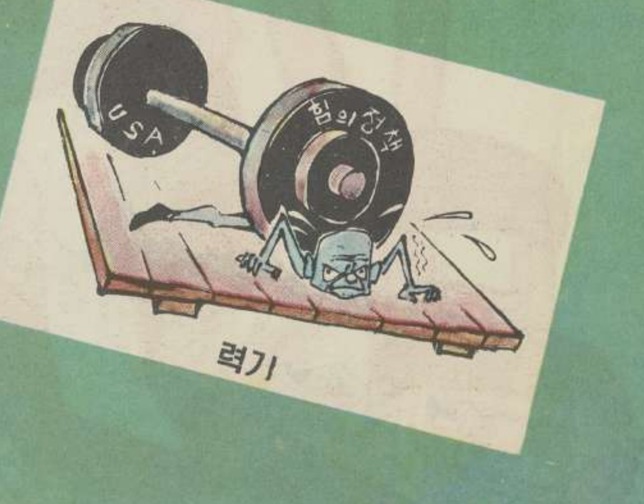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입장식

뽀트 경기

축구

창던지기



력기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6046 발행 1960. 10. 20 (값 40 전)

8034

지난 10월 11일 남조선에서는 4월 인민항쟁 때의 부상 청년들이 괴뢰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고 반인민적 괴뢰 국회의 즉시 해산을 강경히 요구하였다.